

‘생활 속의 책임기 실천’

제2회 독서대상... 대통령상에 유종슬 교사



제2회 '독서대상' 시상식.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정원식)는 지난 12월5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독서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생활 속에 책임기를 꾸준히 실천해온 학생과 교사를 선발 시상함으로써 독서분위기를 고취하자는 뜻에서 제정한 독서대상은 출판문화협회와 운평문화재단이 주관하고 문체부와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번 독서대상 대통령상에는 서울 방학국민학교 유종슬 교사, 국무총리상에 청주교대부속국민학교 김수연 교사, 경기과학고등학교 2학년 김재협군 등이 각각 수상했다. 이밖에 교육부장관상에 서울 혜화국민학교 이홍순 교사와 13명, 교육감사상에 서울 등원국민학교 김정숙 교사 외 13명, 특별상 2명과 추진위원장상, 문화방송사장상, 운평문화재단이사장상 등 총 125명이 상금과 상패를 받았다.

‘95년 올해의 좋은 책 20’

서울지역 출판노동조합(위원장 박강호)은 '95 올해의 좋은 책 20'을 선정 발표했다. 올해 나온 책 가운데 출판사와 연구단체 등에 추천의뢰를 집계, 아동·청소년·역사·문학·인문·사회·자연·철학·예술·환경 등 11개 분야별 총

20권을 선정했다. (730-2648)

어린이 그림책 원화전시회

어린이책 전문서점 초방(대표 신경숙)은 지난달 18일부터 일주 일동안 '세사람의 그림책' 출판기념 그림책 원화전시회를 열었다. 《만화회집》《술이의 추석이야기》《고사리손 요리책》 등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상사를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이끈 그림책 세권의 원화전시와 함께 21일(목)에는 어머니들과 함께하는 '세사람의 그림책 자세히 보기'와 22일(금)에는 일러스트레이터와 함께하는 '세사람의 그림책이 나오기까지'의 행사도 가졌다.

출판영업인협의회 분기총회



출판영업인협의회 분기총회

출판영업인협의회(회장 이운용)는 지난 12월 15일 출판문화회

관 강당에서 제36차 분기총회를 가졌다.

1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도서대금결제개선위원회(약칭도개위)활동보고와 96년 1월부터 도개위의 개선방안에 따르지 않는 회원사들에게 제재조치를 강행할 것을 결의한데 이어 김학원(푸른숲 주간)씨를 초청 출판마케팅에 관한 강연을 들었다.

금성출판사 창립30주년 행사

지난 12월19일에 창립 30주년을 맞은 금성출판사가 지난달 11일 오후 6시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문화·출판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진 이날 행사는 CD롬 《문장백과 대사전》(이영령 편저)의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도 겸했는데, 2대의 대형 멀티비전을 동원하여 '멀티미디어와의 만남'이라는 주제 아래 화려한 영상을 선보임으로써 미래의 출판상을 가늠케 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선물로서의 책’ 설문조사

대학생 중 약 87%가 '책'을 선물한 적이 있으며, 90%가 선물로 책을 받은 적이 있어 신세대들에게 책선물 주고받기가 일상화돼 있음이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KBS 제1라디오 '책마을 산책'에서 지난 12월 전국 대학 남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물로서의 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책 선물 상대는 친구가 가장 많고 선후배·형제·애인·부모·친척 순이며, 책을 고를 때의 기준으로는 베스트셀러(27%)나 스테디셀러(9%) 보다는 '서점가의 판매상황에는 상관없이 고른다'(52.5%)는 응답자가 많아 책

선택이 대중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계몽사 CD롬 타이틀 발표회

계몽사(사장 김준식)는 지난 11월20일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CD롬 타이틀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선보인 타이틀은 모두 7편으로, 과학 주요 분야를 체계적으로

수록한 《멀티미디어 과학백과》와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자료를 소개한 《멀티미디어 민속박물관》, 그리고 《서유기》 등의 명작 동화를 수록한 비디오CD 5편이다. 이들 타이틀을 구동하기 위한 환경으로 IBM PC 윈도우 3.1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비디오CD의 경우 MPEG보드가 필요하다.

문학과지성사 창립20주년

75년 12월 12일에 창립한 이후 800여종의 문학, 역사, 인문, 사회과학서, 잡지 등을 출간해온 문학과지성사가 지난달 12일 본사 2층에서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문학계 유명인

《오늘의 한국 지성, 그 흐름을 읽는다》를 때맞춰 출간하여 모든 축하객들에게 무료배포했다. 이 책은 75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정치사 속에서 우리의 문화는 무엇을 고민했는가, 사유와 정신은 무엇을 토론하고 소망했던



왼쪽부터 오성근·유재천·황동규·김병익·김주연·정문길·서우석씨.

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 출판사측은 이날을 위해 기념도서

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1회 한국출판평론상 공모

한국출판연구소에서 2월10일까지

(재)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김경희)에서 '제1회 한국출판평론상'을 공모한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출판의 좌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출판정책이나 업계 현안은 물론 독자들에게 수준있고 정확한 도서정보를 제공할 전문인을 발굴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공모는, 출판평론가를 발굴하는 국내 최초의 공신력 있는 등용문으로 ▲출판정책 부문(정책개선, 독자창출, 세계화 방안 등) ▲출판계 시평 부문(제작 유통 및 출판경영 등 각종 업계 현안) ▲신간평론 부문(95

년 1월 이후 출간된 책의 장르별 동향, 주제별 신간서평) 등 3개 분야에 걸쳐 시행된다.

상금은 각부문 200만원이며, 분량 및 편수는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출판정책·출판시평부문은 100매 내의 1편, 신간평론 부문은 50매 2편으로 응모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원고하단에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명기해야 하며, 마감은 96년 2월 10일, 당선자는 3월 5일 개별 통보한다.(문의 739-9040)